

샬롬, 현충일맞아 군부대교회방문 찬양해

김도묵 장로 장병위해 특별 기도, 예배후 전망대 관람



샬롬 찬양대가 군 선교 차원으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승리부대를 방문 찬양예배를 드렸다. 승리부대의 250여 장병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김도묵 은퇴 장로가 성백술 선교위원장의 초청으로 특별 방문하여 기도를 하여 주었다. 김 장로는 전방에 근무하는 모든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항상 같이하는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에 나와서도 항상 주님과 같이하는 삶을 갖기를 바램으로 기도 하였고, 이 호 목사의 설교에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250여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답하며 찬양이 시작

되었다. 샬롬 찬양대의 지휘자 이동훈 집사의 지휘로 2시간동안 찬양이 이어졌는데 앵콜이 거듭 되었고 박상철 집사의 섹스폰 연주 그리고 김정민 자매의 가곡과 장병들 또래의 자매들 특별찬양이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부대를 둘러보는 과정에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안내하는 사병의 목소리에서 선배들의 합성과 용맹을 그리는 듯한 감격을 느꼈다. 북쪽의 철책선 너머에 있는 1062m 고지의 오성산에서 의정부지역의 핸드폰 통화까지도 감청 할 수 있다는 말에 우리의 안보는 어떤가를 생각해 되었으며,

(4면에서 계속)

고등부야외예배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6월 5일 야외예배 준비를 위해 고등부 찬양팀은 토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새벽 늦게까지 야외예배 장소에 가서 악기들을 설치해 놓았다. 피곤했지만 기쁨이 가득했다. 찬양팀 아이들의 재잘거림 속에서 느껴져 오는 즐거움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이 왠지 모르게 우리를 뿌듯하게 했다.

(2면에서 계속)

청소년 세례 및 입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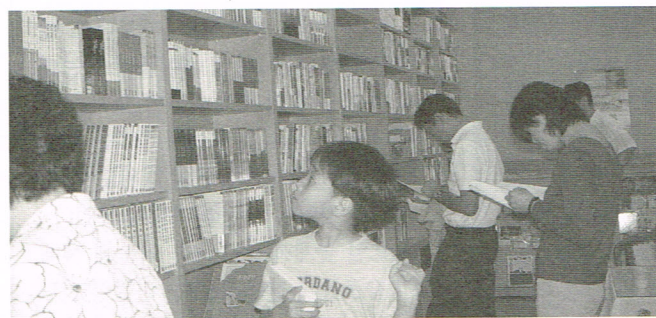
2004년도 상반기 청소년 대상 세례 / 입교식을 교육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5월 23일 · 30일 · 6월 6일 세차례에 걸쳐 세례교육이 이미 실시되었으며, 6월 13일 주일에는 세례/입교 문답식이 진행된다. 세례/입교식은 다음 주일인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연합 예배 형식으로 함께 진행 될 예정이고, 세례/입교 집례자는 김성관 목사이다. 이날 세례/입교식을 통해 중등부 박지혜 외 6명이 입교할 예정이며, 황희수가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정립구역의 서울대 나들이

지난 5월 30일(주일) 주일예배 후에 정립구역 식구 15명과 장애인부 신형섭집사 그리고 문동학목사가 서울대학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정립식구들의 친구인 강신후장로(서울대교수) 부부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정립식구들과 서울대학교교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구역식구가 "서울대에 한 번도 못가봤어요." (웃음)하는 말에 이들을 초대하여 교제하기로 했던 것이다.

2부 예배 후에 출발했는데 신형섭집사의 도움과 김주옥집사의 안내로 서울대학을 찾아간 일행은 "우리 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오다니 기분이 좋다~"였습니다. 강장로 부부는 따뜻하고 반갑게 이들을 맞아주었다. 조명국집사는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결코 저렇게 환한 웃음을 간직할 수 없을 겁니다" 하고 그 표정을 전한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교제했으며, 식사 후에는 관악산 자락에 자리잡은 서울대학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 서울대학교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말씀은 문동학목사가 전하며 정립식구들과 같이 해주었다. 정립식구들은 이런 관심과 배려속에 참 즐거운 추억을 간직한 시간이었다.

설만한물가에 서점 오픈



2004년 4월부터 친교실에 주중에도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카페 "설만한 물가"를 연데 이어 6월부터는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을 마련하였다. 현재 약 2천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으며 앞으로 약 4천 권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독교서적과 일반 양서를 위주로 취급할 예정이며 한달 간격으로 교우들과 교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구입이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할 예정이며 특히 구입하고 싶은 책이 없는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그 다음 주일에는 구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부러 서점을 가지 않아도 원하는 책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서점운영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회가 조직되어 서점운영 수익금의 대부분은 교회에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로 대외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철웅 집사가 봉사회장으로 김영중 안수집사가 서점운영 팀장으로 선임되어 수고하게 되었다. 주중에는 "설만한 물가" 봉사팀에서 서적의 판매를 담당하고 주일에는 봉사회원들이 봉사할 예정이다. 봉사 희망자는 자원봉사 연결데스크로 신청바란다. 이용가능 시간은 주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육군훈련소 찬양사역위해 오늘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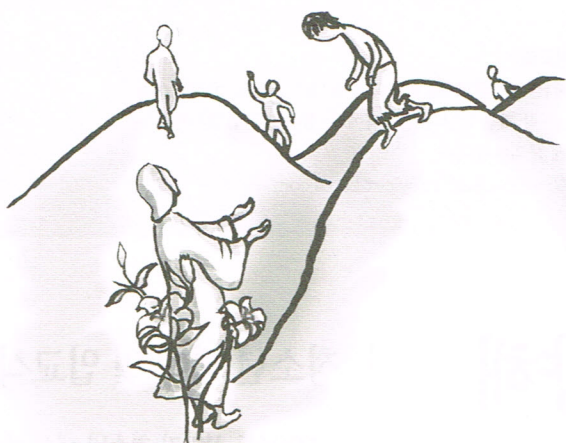
사역팀, '군복음화 되면 민족복음화' 비전포고기도

6월 13일 오늘 육군훈련소 선교팀에서는 논산 연무대교회에서 군입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찬양집회를 갖는다. (2면에서 계속)

정정합니다

본보 5월 23일자 기사에서 장애인부, 안양교도소 청각장애인 방문을 다루는 기사에서 '농아', '농아인'이라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청각장애인'으로 정정합니다.

오늘 기도



광야의 시냇가에 주님을 만나
진정한 꽃을 피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면에 이어서)

육군훈련소 찬양사역 위해 오늘 출발

사역팀, '군복음화되면
민족복음화' 비전 품고 기도

이 장병들은 거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로서 사회문화 계층적으로 거대한 미전도 종족으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약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입대한다. 특히 입대 초기 심리적으로 외롭고 불안해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효과적이기에 중요한 요지이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육군훈련소만을 위한 선교팀이 별도로 구성되

어 사역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지하 1층 영아부실에서 기도 모임을, 6주마다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전도를 돕고 있다. 적은 숫자이지만 군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신앙으로 국방을 지키기 위해, 군대문화를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문화로 바꾸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군대가 복음화 되면 민족복음화도 가능하기에 커다란 비전을 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육군훈련소사역팀은 찬양집회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오늘은 청년부 파워워십 댄싱팀과

초등부의 나하나양이 독창으로 준비해주었고, 인천의 꿈이있는교회 뮤지컬팀 피스가 동역하게 된다. 정영환목사의 콜링으로 결신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 육군훈련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의 가치가 통용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 람들이 많이 탄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며 가능하면 복음전도의 현장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되길 기대한다.



정립구역,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하는 우리 교회의 보배”



4교구 12구역은 일명 “정립구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구역원들 대부분이 정립전자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중턱에 위치)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우들이기 때문이다. 윤덕영 교구목사는 “정립구역은 장애라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교회의 보배입니다”라고 정립구역을

소개한다. 구역장 김창안 안수집사(장애인부 부장)가 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구역의 특별한 사정에 맞게 정립전자 내의 식당이나 회관을 구역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간증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휠체어에 의지한 몸으로도 권찰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한군회집사, 리더훈련반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김동관집사,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명국집사, 천사의 마음으로 주위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강종순, 손치아, 전선덕집사, 그리고 지난번 무지개축제때 성화봉송 최종주자로 활약한 박영호·이은희 부부와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한 천명옥·장정열부부, 부부가 함께 정립전자에 근무하고있는 김원철·김임순집사, 김환경·조경옥집사, 김성규·박진영집사 등이 기존의 구역원들이며, 작년부터 최인옥, 이정순, 유병설, 남미숙, 허명주 자매가 참석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새로이 허병천형제와 마갑영자매가 동참하고 있고, 마갑영자매는 답십리에서 한의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아마비 등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치료·상담할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중이다. (3면에서 계속)

건강비결 찬양! 앙코르

앙코르합창단 단원들은 누가 뭐라해도 자신들의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 찬양때문에 건강해지고 즐거움이 있고 친교가 있다고 대장 신정웅 집사는 말한다.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찬양하자고 단원들은 약속하고 있다. 지휘를 맡고 있는 김주봉 집사는 어떻게 하든 악보를 보고 음정을 파트별로 낼 수 있게 할까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을것이다 라고 말한다. 단원들도 대부분이 늙어가면서 찬양이 더욱 은혜스럽다며 이런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한다. 오늘 연습곡은 원하네 Desire 이며 찬양드릴날은 미정이다. 단원으로 참가하실 분은 신정웅집사 (011-236-0661)에게 문의바란다.

(1면에 이어서)

고등부야외예배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드디어 6월 6일, 어느 때보다도 날씨는 좋았다. 아침에 아이들이 왔는데 학원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오지는 못했다. 많은 아쉬움 속에서 우리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동안의 더위도 한 풀 꺾이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토요일 늦게까지 수고한 덕분에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김현령 전도사의 시편 104:10-13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누리도록 했고, 함께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주일에 감사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며 교체하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한 시간이었다.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으로 도서관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대출대장에 일일이 대출자 인적사항, 책이름, 출판사 등을 기입하는 수고를 하여야 했으나, 지금은 책에 부착된 바코드에 스캐너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되게 되어 도서대출 절차가 매우 간소해졌다.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하여 6,000여권의 소장도서를 한국십진분류표(KDC)에 따라 분류하고 책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바코드 부착작업이 5월말로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외부 인

력 도움 없이 순전히 도서관원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 첨단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몇 가지 협조가 요청된다. 첫째, 도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교인은 도서대출카드를 발급받길 바란다. 도서관 카운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둘째 본 책은 본인이 원위치를 찾아 찾으려하지 마시고 도서 반납대에 놓아두기 바란다. 도서관원들이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또 도서관 인터넷 카페가 개설

되었다. 이 카페를 통해 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대출예약도 할 수 있다. 또 도서관에 없는 책을 구입요청하면 기획 되는 대로 보충할 예정이다. 그 외에 도서 및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되어있으니 보다 많은 교우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소는 cafe.daum.net / PCLBOOKS 이며 윤복신 집사가 카페지기로서 수고하고 있다.

5여, 청계산에서의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저

제 5여선교회는 6월 9일 매월 교회에서 진행하던 월례회를 싱그러운 숲에 자리한 청계산 기도원에서 가졌다.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모두 겸손하게 기도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들을 위하여 구역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들의 기도를 했다. 회원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을 서로 자극하며, 영적은사들을 서로 나누었고 충만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기도원에 처음 온 회원들도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것을 다짐했다.

청년부 워십팀

논산훈련소에 청년워십팀이 뜬다

주님의 교회 워십팀 '영혼(young H.O.N.)'이 6월 13일 논산훈련소로 군사역을 떠난다. 일정은 13일 주일 낮 2시 30분경 교회에서 출발,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5시 예배와 7시 예배를 드리고 올 예정이다. 영혼팀에서 준비하는 곡은 워십댄스로 'MY LIFE', 'LEAN ON ME' 두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논산훈련소는 타 부대와는 다른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6주간의 힘들고 외로움을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더욱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장소이다. 군부대 위문공연 중 가장 중요한

영적 자리가 될 논산훈련소에는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군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며 그 예배시간을 통해 단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영혼팀은 준비한 워십을 보여줄 것이다. 영혼팀은 단순한 공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용사가 되고자 한다. 또 이들 뒤에 기도의 씨앗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군사역팀이 함께 하고 있기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유영안전도사, AWANA 사역을 맡아

6월 6일(주일) 통합 아동부 찬양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하는 선생님의 물음에 아이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손을 번쩍 들었다. 통합아동부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높으심을 손뼉 치며 온몸으로 찬양하는 어린이

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우리를 희생해야 한다.”고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임을 소리치고 있는 듯 하다. 릴레이 홀라후프 줄넘기 게임을 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주의집중에 효과적이었다. 지난 주부터 AWANA를 맡고 있는 유영안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여 통합아동부 예배의 설교를 담당하고 있다.



교구수련회안내

2교구 교구수련회

2004년 7월 2-3일(금-토)에 1박2일의 일정으로 광림유스호스텔(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소재)에서 있을 예정이다. 신앙수련과 교구식구간의 친교에 목적을 두어 짧지만 알찬 이틀간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구식구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역장들에게 문의바란다.

3교구 교구수련회

2004년 7월 16일(금)~ 17일(토), 1박2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자연농원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시편 89편 52절을 근거로 특별히 찬송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수련회가 진행된다. 찬송의 원어적 의미는 축복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

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될 목표는 첫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에게 목적있는 삶(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시간들로 보낼 것이다. 함께 부를 주제찬송은 공모중에 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신 분은 교구목사(019-229-1590)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4교구 교구수련회

7월 23일(금) 오전8시 출발하여 24일(토)까지 포천염광수련원에서 열린다. 우리 교구는 일산과 강북지역에 널리 퍼져있어 구역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이번 교구수련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역장님들은 참가 가정을 파악하여 6월 마지막주일까지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포천염광수련원은 1년 전에 지어진 최신시설이며, 1급수의 계곡이 있고 신복 온천(워터피아)가

있어서 가족휴가로도 매우 좋은 장소이다.

5교구 교구수련회

7월 16일(금)-17일(토)에 장소는 수려한 계곡을 품고있는 십자수도원으로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있을 예정이다.

1여선교, 안산 진생도 교회 방문 행려인 격려

제1여선교회(회장 이건효집사)는 지난 주 안산진생도교회를 방문하였다. 진생도교회는 행려인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는 교회로서 현재 20여명의 행려인이 몸담고 있는데 여기를 거쳐간 이들만해도 수없이 많다고 한다. 진생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뜻하는 진과, 모든 생은 주로부터 왔다는 생,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참길이라는 도를 합하여 지었다 한다. 민백규 목사 내외만이 봉사하고 있는데, 국가 땅에 개척한 것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민백규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힘한 길

을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사랑, 봉사가 넘치는 주님의교회 되길 당부하였고, 행려인들의 심경을 이해해야한다면서 일하기 싫어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에 따라 극복하기까지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며 그들을 감싸 안았다. 민목사 내외분의 장막도 없이 대소변을 갈아대며 고름을 짜내며 후미진 곳을 손수레도 없이 길가에 버리워진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보듬어 부지런히 주님곁으로 모시어 드리는 처절한 몸부림을 주님만이 아시기에, 두분의 얼굴은 실로 해같이 빛났다. 작은 정성으로 제1여선교회가 금일봉 및 몇분의 특별헌금과 닭,수박을 드렸고, 민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한자문화와 기독교관”과 무궁해 열무를 한아름씩 안겨주어 숙연해지는 마음 가눌길이 없었다. “그들이 저 두분으로 인해 설만한 물가로 인도되었사오니 오늘밤만이라도 두분만의 잔잔하고 애잔한 달빛이불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안온하고 평온한 한밤되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 제1여선교회원들 모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토록 귀한 주님만 더욱 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돌아오는 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2면에 이어서)

정립구역,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하는 우리 교회의 보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에 의지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현재의 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금년 4월에도 “정립전자 직원초청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었다. 구역장 김창안 안수집사는 이 자리

를 빌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면서, 지난달 한교회집사 모친의 병상에서 호스피스로 봉사하신 호스피스부 김양자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호스피스 부원들과, 무지개축제때에 풍성한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어주신 2교구20구역(장양순 구역장), 1교구17구역(임근원 구역장), 1교구23구역(강진식 구역장)을 비롯한 여러 교우들에게 정립구역식구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박진수 집사(복사단장)가 군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 창립기념주일 및 축하음악회

6월27일은 창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부예배 시간에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갖습니다. 창립축하음악회가 6월23일(수) 오후 7시30분 중예배실에서 호산나찬양대 주관으로 열립니다.

2. 피택자 예비모임

임직식 준비를 위한 피택자 예비모임이 6월20일(주) 오후 1시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3. 6월정기당회

6월정기당회가 19일(토) 오전 6시 4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4. 논산 훈련소 사역출발

논산 훈련소 연무대교회 사역을 위해 육군훈련소 사역팀과 청년부 위임팀이 오늘 오후2시에 로비 앞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정영환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5. 나눔의 주일

다음주일은 나눔의 주일입니다. 복지선교부에서는 현재 여러 군데에서 나눔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옷가지, 신발, 내의, 및 책이나 가전제품 등 쓸만한 물건들을 기증하여 주시면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광고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문의: 이충길집사, 011-736-9571)

6. 아시아법연구소 설립

권오승 장로(7-10구역)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제도와 법문화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법연구소

(www.lawasia.org)를 설립하였습니다. 6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에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 20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리셉션을 가지며, 6월 19일(토) 서울대 법대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서암홀(17동 612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기도바랍니다.

7. 주일 도로주차 안내

주차할 때 우성아파트쪽 차도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송파구청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8. 자원봉사자 모집

주일 새벽에 식당봉사할 남자성도와(문의 강은애 권사 016-281-4390), 꿈나무공부방 피아노 교사 자원봉사자 4명(문의 한정웅 집사 010-8001-1144) 모집합니다. 합죽함울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합죽함울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 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이창현 목사 011-466-4736)

9. 청소년 세례·입교예식

교회학교 청소년들의 세례 및 입교예식이 6월 20일(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오전 11시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10. 설만한 물가 이용안내

1층 친교실 자리에 카페 「설만한물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잎,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면에 이어서)

살롬, 현충일맞아 군부대 교회방문 찬양해

김도목 장로 장병위해 특별 기도, 예배후 전망대 관람해

영하 50°의 추운 지역을 방송으로만 들던 추운곳, 또는 6,25 동란시 주인이 14번이나 바뀌었다는 피의 능선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곳을 박진수 부사단장의 안내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박진수 부사단장은 주님의 교회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가족되는 하현숙 집사는 3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한다. 이 부부는 주일이면 화천에서 새벽 6시30분에 출발하여 2시간 여를 달려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 집사가 준비한 승리 부대의 부대찌개로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 어느 찌개보다도 맛있다는 동료들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며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았다.



❖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 서	일 정	장 소
영아부	8월 15일	주님의교회
유아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치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년부	8월 15~17일	경기도 안성 엄마 농장
초등부	7월 29~31일	경기도 양평 관광 농원
소년부	7월 22~24일	경기도 중부 수련원
중등부	7월 25~27일	강원도 화천 광덕 그린 농원
고등부	8월 1~4일	강원도 홍천 허브 농장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은 cafe.daum.net / PCLBOOKS 로 해주세요.

4.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 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